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통과 눈앞 사기 근절 통해 보험료 절감 기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정무위 통과
여야 이견 없어 연내 본회 넘을 듯

관련종사자 사기적발엔 가중처벌
가담한 병·의원, 대리점 등 공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안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기가 크게 줄어 들고, 소비자들의 보험료도 절감될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 제10차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국회 첫 관문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 행위를 벌일 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다. 직접적인 사기에 가담한 병·의원, 보험대리점 등의 명단을 공표하고 보험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민사소송 없이 부당편취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한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행위 역시 금지토록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관련 법안이 제정된 이후 7년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험사기 대응에 역부족이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사상 첫 1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623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115억원) 보다 약 21.8%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으로 2021년(9만7629명) 대비 약 5.2%(5050명) 증가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근절을 통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 민생 법안으로 꼽힌다. 고도화되는 보험사기 수법으로 피해 규모가 늘어나면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하면 약 6000억원의 보

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자동차보험 1793억원 ▲실손외장기손해보험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 2072억원 등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 나온 제도적 보완책이다. 보험업계는 여야 이견이 특별히 없는 사안인 만큼 올해 내 국회 문턱 넘을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안 논의는 국회 일정과 연동되기 때문에 회의가 잡혀야 한다”며 “그동안 일정에서 밀린 이유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순위로 계속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으므로 논의만 이뤄진다면 통과될 것이라고 본다”고 귀띔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JB금융, 2년 연속 ‘ESG우수기업’

KCGS 올해 총 1049개 기업 평가
JB금융, 국내 금융지주 유일 선정

JB금융그룹이 2년 연속 한국ESG기준원(KCGS)이 선정하는 ‘ESG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한국ESG기술원은 지난 2011년부터 상장기업의 환경(Environment), 사회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와 같은 비재무적 수준을 종합 평가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총 1049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JB금융지주는 2023년 ESG 평가 결과 환경 부문에서 A+, 사회 부문에서 A, 지배구조 부문에서 A, 통합등급 A 등급을 받아 국내 금융지주가운데 유일하게 ESG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JB금융지주는 지난 2021년 6월 ESG 경영을 위한 중장기 전략발표와 함께 ‘더 나은 미래로, 함께 가는 JB금융’이라는 ESG 미션을 선포했다. 이사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주 및 계열사 주요 임원과 ESG실무진이 참여한 ‘ESG 협의회’를 통해 그룹 내에서 전사적인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2년에는 국내 금융회사 중 두번째로 SBTi(과학 기반 감축



JB금융지주 본점. /JB금융지주

목표 이니셔티브)로부터 탄소 감축 목표에 대한 승인을 획득해 글로벌 수준의 탄소중립 이행 프로세스를 실행해 나가고 있다.

올해에는 지역사회 및 소외계층 지원에 앞장서기 위한 사회책임경영 일환으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룹 봉사단을 창단해 ▲지역아동센터 개선지원 ▲다문화 청소년 지원 ▲자립준비 청년 지원 등 3가지 그룹 핵심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 중이다.

JB금융그룹 관계자는 4일 “이번 우수기업 선정을 계기로 ESG 우수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진정성 있고 고도화된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금감원, 지역사회와 금융사기 예방 나선다

세종시·한화손보와 업무협약 체결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 홍보활동

금융감독원은 4일 세종특별자치시장, 한화손해보험과 보이스피싱 예방 및 지역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나채범 한화손보 대표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세종시의 공공시설 및 각종 공식행사 등을 활용해 금융사기 예방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세종시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홍보를 위한 장소 제공 등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보험제

도 및 출산장려 시술비 지원사업도 홍보할 계획이다.

한화손보는 세종시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보험 가입 지원 및 출산 장려 시술 비용 보조 등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한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은 금융사기 예방과 함께 금융회사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금융범죄, 저출산 등을 금융권이 지역 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올해 청약접수 3건 중 1건은 ‘서울 지역’

서울 신규단지 33만건 청약 접수
내년 물량 최저치로 경쟁과열 예상

올해 11월까지 전국에서 103만건 이상의 청약이 접수된 가운데 서울 지역의 청약 접수 건수가 30% 이상을 기록했다. 고금리와 분양가 상승으로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선별청약 현상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4일 분양 평가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청약 신청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103만99건(특별공급 13만2676건, 일반공급 89만7423건)의 민간분양 아파트의 청약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128만7059건) 대비 20%(25만6960건) 줄어든 수치다.

올해 아파트 청약은 서울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서울 신규분양 단지에는 33만775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이는 전국 청약 접수건수 중 32.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지난해 동기(9만470건) 대비 약 3.7배(24만305건) 늘어난 수치다.

실제로 올해 청약자 2만명 이상을 모은 단지 13개 중 6개는 서울 아파트가 차지했다. 지난 8월 동대문구에서 분양한 ‘래미안 라그라데’는 4만7674명이 청약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4만6569명)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뉴시스

정’(3만9841명)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라이프’(2만9201명) ▲‘영등포자이 디그니티’(2만4473명) ▲‘휘경자이 디센시아’(2만2590명) 순이었다.

경기·인천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은 지난해 대비 8821건 감소한 29만4108건이 접수돼 서울에 1위 자리를 내주었다. 인천의 경우 15만3791에서 4만7086건으로 69.4%(10만6705건) 감소했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분양 물량은 늘었지만, 청약에서 11만3720건이나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경북 지역은 물량이 5분의 1도막이 나면서 청약도 11만957건 감소했다. 경남 지역은 올해 청약 접수를 받은 13개 단지 중 3개 단지에서 청약자 ‘제로(0)’를 기록했다. 대구·울산·제주에서는 올해 청약 접수를 받은 모든 단지가 공급세

대를 채우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입주 물량 급감으로 청약 경쟁률이 치솟는 등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공급 불균형도 커지고 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팀장은 “내년 서울 입주물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서울 청약시장 쏠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백재훈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서울에서는 사실상 올해 마지막 대규모 분양예정지인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가 분양 개시를 앞두고 있다”면서 “적정 분양가를 고려한 선별청약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 가격 수준에 따라 흥행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환 기자 kdh@

“ATM서 얼굴 정보로 출금·이체 하세요”

신한은행, ‘얼굴 인증 서비스’ 시행
솔 앱이나 영업점서 얼굴정보 등록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얼굴정보 인증을 통해 ATM에서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얼굴 인증 기반 ATM 출금 서비스’는 ATM에서 카드, 통장 등이 없어도 얼굴정보 인증을 통해 출금 및 이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솔(SOL) 앱이나 영업점에서 얼굴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이용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얼굴 인증 기반 ATM 출금 서비스를 ATM중 300여대에 우선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



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바이오 인증 활성화’ 로드맵에 발맞춰 금융권 바이오 인증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향후 생체 인증 서비스 적용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